

다음은 2023. 9. 26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주최 “글로벌 대전환 시대, 한국의 대외경제정책 방향” 회의에서, 사공 일 세계경제연구원 명예 이사장의 기조연설 요지이다.

## < 혼돈 속의 세계경제질서와 한국의 선택 >

### 기조연설 요지

(1) 현재 세계경제는 세계 2차대전 이후, 사상 유례없는 세계 경제의 장기 지속 성장과 번영을 뒷받침해온 “자유주의 경제질서”(liberal economic order)와 국제 경제 체제의 와해와 혼돈속에 놓여있다.

(2) 이는 이 질서를 창출·유지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해 온 미국과, 이 질서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세계 제2 경제 대국으로 굴기하던 중국 간의 패권 경쟁(hegemonic competition)이 본격화됨에 따른 불행한 결과이다.

(3) 좀 더 구체적으로, 중국의 시진핑 체제가 미국을 제치고 패권국이 되겠다고 공표한 “중국몽”에 대응해, 미국(유럽연합(EU)도 함께)이 경제 논리보다 국가안보와 지정학적 이해관계에 우선권을 둔 대내외 경제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고, 그 결과 기존 세계경제체제와 질서가 혼돈속에 빠지고, 세계경제의 분열화·블록화를 촉진하게 된 것이다.

(4) 시진핑 3연임을 통해 재확인되었지만, 중국에게 중국몽이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국가 최우선 목표이다. 반면에 앞으로 상당 기간 하드·소프트 파워 양측면에서 미국의 상당한 상대적 우위가 확 실시되는 가운데, 미국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중국을 견제하게 될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세계경제와 전 세계적 차원의 심각한 문제는, 미·중 패권 경쟁이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다는 데에 있다.

(5) 일부에서는, 소위 “투키디데스 함정”(Tuchididdes trap)에 빠져, 미·중 간 전쟁의 가능성마저 걱정한다. 그러나 현재 미국과 중국은 과거 어느 패권경쟁 상대국에 비해 높은 경제적 상호의존성과 보완성을 갖고 있다는 점만을 감안하더라도, 양국 간 전면전의 확률은 높지 않아 보인다. 최근에 미국 백악관의 안보담당보좌관과 중국의 중국 외교장관 겸 중국 공산당 최고 외교담당자의 몰타(Malta) 회동과, 미국 재무장관, 국무장관, 그리고 상무장관의 연이은 북경방문은, “큰 재앙 없는 경쟁”(competition without catastrophes)의 중요성에 대한 양측의 생각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6) 일부 전문가들은 시진핑 주석이 바이든 미국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피하기 위해, 오는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APEC) 회의 불참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그러나 최근들어 심도있게 논의되고 있는 “중국경제의 일본화” 혹은 “중국경제의 증진국 함정 매물 가능성” 등을 고려할때, 샌프란시스코 미·중 정상회의 성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가장 장기적인 안목에서 전략적 사고를 하는 나라로써, 궁극적 목표달성을 위해, 실용주의적 유연성을 보이는 것을 꺼리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볼 때, 앞으로 미·중간 일부 경제적 타협과 조건부 양보의 반

복 가능성은 높아보인다.

(7) 오히려 미중패권경쟁의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리더십(global leadership) 공백으로, 세계경제질서 복원과 세계경제의 지속성장과 번영에 필요한 글로벌 공공재(global public goods) (예를들면, 다자주의에 기초한 자유무역과 국제금융·외환체제의 안정) 공급부족에 따라, 1930년대 세계가 경험한바 있는 소위 “킨들버거 함정”(Kindleberger trap)에 빠져, 세계경제가 장기간의 저성장과 침체를 겪게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8) 우선 우리는 유일한 안보·가치 동맹인 미국과,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중요한 교역상대국인 중국과의 패권경쟁 장기지속 와중에서, 우리는 양국으로부터 대내외 정책결정에 대한 양자택일의 압력이 잦아질 것을 예상하고, 항상 이에 대응책을 마련해두어야 한다. 무엇보다, “가치”와 “원칙”에 기초한 “일관성”있는 정책추진과 “논리”로 이들을 설득시켜야 한다. 중국과의 양자간 긴밀한 경제관계 유지는 물론 중요하다. 이와 동시에 다자와 지역차원의 대중국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 노력을 펼쳐야 한다. 우선 우리도 이미 중국이 가입 신청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위한 필요한 국내 절차를 거쳐 빠른시일 내에 공식 신청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중단 상태에 있는,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FTA) 협상 재개를 위해,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적극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9) 나아가 자유주의 세계 경제 질서하에서 주요 10개국(G10)의 반열에 올라선 우리는, 국제 외교 무대에서 이 질서 복원과 보완을 위한 국제공조를 위해 “뜻을 같이하는”(like-minded) 다른 중견국

(Middle Power)들과 함께, 집단지도력(collective leadership)을 발휘하는데도 앞장서야 한다. 이를 위해 G20 정상회의와 그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리더십을 발휘해야한다. 우리나라는 2010년 서울 G20정상회의 성공을 통해, 글로벌 리더십 능력(capacity)에 대한 국제적 인정을 받은바 있다. 더욱이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에, 한국 주도로 G20 아젠다로 채택한 개도국개발의제가 금번 뉴델리 G20 정상회의에서 G20 핵심의제로 다시 부각되었고, 다음 의장국인 브라질도 이 의제를 계속 중시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많은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이 한국의 개발 경험을 공유하고 싶어할 뿐 아니라, 적극적 리더십을 기대하는점을 고려할때, 2024 리오 G20 정상회의는 우리가 개발의제에 관한 리더십을 발휘할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10) 중국과 브라질, 그리고 인도 등 소위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국들이, 미국을 위시한 서방 국가들과 함께 2009년 피츠버그 G20정상회의에서 G20을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하고 균형있는 성장을 위한 “국제경제협력의 프리미어 포럼”(premier fourm)으로 합의한 바 있다. G20은 대표성, 정당성, 그리고 효율성면에서 기존의 다른 어느 포럼(예를들면 G7, BRICS, 글로벌 사우스)에 비해 비공식 글로벌 경제운영위원회(Informal Global Economic Steering Committee)로서의 유리한 위상을 갖고 있다. 게다가 2007/8년 글로벌 금융위기시 국제 공조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기록도 갖고 있다.

(11) 이런 G20정상회의가 성공하기 위해, 무엇보다 먼저 정상회의의 주 아젠다는 세계경제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계획과 로드맵, 그리고 상호평가와 점검이 중시되는 과정

(process)로서의 정상회의가 되도록 해야한다. 이를 위한 최소한의 사무국 설치 등 제도화는 불가피하다.

(12) 이렇게 불투명하고 어려운 세계경제 여건과 제4차 산업혁명의 큰 물결속에서, 대외 개방·의존도가 특히 높은 한국경제의 지속성장과 번영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현재 2% 수준에 있는 경제성장 잠재력을 제고하는 일이다.

(13) 이를 위해 국가 재정건전화 기반위의 교육개혁과 노동시장개혁이 시급하다. 교육개혁은 제4차산업화 시대에 필요한 인재양성을 위한 기존 교육체제와, 교육내용, 그리고 교육방식의 전면적 개혁의 큰 틀 안에서 추진되어야한다.

(14) 저출산과 고령화를 감안한 여성·고령인력을 포함한 기존 인력의 효율적 활용에도 필수 불가결한 유연화와 함께 고급 외국인력 유치, 나아가 중·장기적 안목의 이민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모아야 한다.

(15) 미·중 패권 경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세계경제의 생산·유통 구조와 공급망 재편 또한 지속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기업하기 좋은 여건” 마련을 위한 규제개혁은 국정의 우선순위를 두고 꾸준히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경제 전체의 체제적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존의 법과 제도의 글로벌 스탠다드화 내지 일류화를 위한 개혁과 함께, 우선 정부 스스로의 효율성을 높이고, 일류 정책 생산과 대국민 설득을 위해 정부내외의 두뇌집단과 전문가 집단의 효율적 활용방안의 마련 또한 시급한 일이다.